



“바닥찍은 韓,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자”

2026 신년기획 대한민국, 혼란 딛고 재도약

전략산업 중심 무역 다변화하고
피지컬AI·기후기술 성공개발 등
정치·경제·사회 ‘역동성’의 한 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2026 병오년(붉은 말의 해) 새해가 밝았다. <신년호 기획기사 3~12면> 강렬한 태양(丙)과 기운찬 말(午)이 만나는 ‘붉은 말의 해’로 불(火)의 기운을 받아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역동성이 두드러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미국의 중간선거 등 글로벌 시장의 잠재된 변수에 대한 대응에 따라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 대한민국 2026년 혼란을 딛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산업 중심의 무역 다변화와 피지컬AI·기후기술의 성공적 개발 등을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앞두고 말들이 떠오르는 해와 함께 힘차게 뛰고 있다. 힘차게 뛰어노는 말의 생동감을 이어받아 만물이 활동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기를 바래본다.

1일 삼일PwC 경영연구원의 ‘2026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대규모 정책 투자로 1% 후반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경제 핵심 키워드는 유동성, 정

부 정책, 기술로 함축됐다. 전세계적인 저성장 고착화 기조 속에 정부 정책과 인공지능(AI) 중심 기술혁신이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반도체 하나에만 목을 매는 상수를 두어서는 안된다. 반도체 경기가 꺾

이거나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면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 석유화학업종은 사이클이 돌아와야 하고 배터리 소재 분야는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위한 시간이 절실한 상황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韓 대도약의 원년”

‘병오년’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국가 성장 전략의 전면적 전환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새해 첫 날인 1일 공개한 신년사에서 지난해를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한 시간”으로 평가하며, 국민의 신뢰와 참여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정부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했고, 경제성장률도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수출 연간 700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 기록 등을 언급하며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했다.

또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 사회 복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을 2025년의 외교 성과로 제시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도 성과로 포함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는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 기자 syj@



韓 경제성장률, 美·中·日 모두 앞섰다

OECD, 작년 3분기 韓 성장률 1.3%
이스라엘·덴마크 이어 ‘공동 3위’
연간수출 7000억 달러 쾌조 영향

한국이 경제성장률 부문에서 미국, 중국, 일본을 전부 제쳤다. 비록 특정 분기(2025년 3분기)의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비교에서 이 세 나라 모두에 앞선 것은 14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이 같은 쾌조의 성장세에는 수출이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수출액은 역대 처음으로 7000억 달러 선을 넘어섰다.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 경제는 직전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미국(1.1%)과 중국(1.1%), 일본(-0.6%)을 모두 앞질렀다.

한국이 4개국 중 성장률 1위에 오른 것

은 코로나19의 기세가 한창이던 2022년 1분기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당시 한국이 0.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국(0.1%), 미국(-0.3%), 일본(-0.4%) 순이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과 미국 경기는 무서운 속도의 회복 국면을 자랑했다. 한국은 미·중은 물론 일본에도 분기별 비교에서 수차례 밀린 바 있다. 게다가 계엄·탄핵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 경제는 휘청였다. 2024년 4분기 0.1% 성장에

그런데 이어 2025년 1분기에는 역성장(-0.2%)을 겪어야 했다.

다시 사회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작년 2분기 0.7%로 회복한 후 3분기에 1.3%까지 단숨에 반등한 것. 우리나라의 1%대 분기별 성장은 2021년 4분기(1.6%) 이래 첫 사례다.

한국은 37개 OECD 회원국(노르웨이 제외) 가운데 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3위에 자리했다. 한국 위로는 이스라엘(2.6%)과 덴마크(2.2%)뿐이다. 특히 주요 7개국(G7) 평균(0.6%)과 유럽연합(EU) 27개국 평균(0.4%)에 크게 앞섰다. <4면에 계속>

/김민세 기자 kys@

The illustration depicts a vibrant street scene for the Samsung 2026 New Year campaign. Large, 3D blue numbers spelling '2026' are the central focus, with various Samsung-branded storefronts integrated into the digits. These storefronts include '스마트공장' (Smart Factory), '희망다들' (Hope All), 'SSAFY', and '청년희망터' (Youth Hope Place). People are shown interacting with these spaces: some are working at computers, others are shopping, and a group is playing soccer on a nearby field. A signpost on the left points towards '희망으로 2026' (2026 with Hope). The Samsung logo is prominently displayed in the top right corner.

SAMSUNG

새로운 꿈을 펼치는 2026년

끊임없는 도전의 발걸음마다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꿈과 상상이 현실이 되는 2026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삼성에는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 동행하고 있습니다